

시끌벅적 e-스타



극심한 취직난... 20대 “우린 88만원짜리다”

“대통령님~ 우리 취직하게 해주세요!”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 말은 20대 대부분이 월급 88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는 취업난을 다른 ‘88만원 세대의 악몽’이라는 동영상이 2만여 네이션의 클릭세례에 인기 를 끌고 있다.

동영상에서는 취업난을 피하기 위한 6 가지 사항이 나온다. 밀안해도 알아야 한다는 학점은 3.8, 토익의 기본은 800점이다. 현자에서 컴퓨터까지 각종 자격증은 필수란다. 초등학생들도 척척 자격증을 따내는 걸 보면 일찍 따놓을 걸 하는 후회가 밀려든다.

공모전 및 각종 활동은 선택이다. 기업 홍보대사에 자원봉사까지 대학생은 봄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인턴경험은

‘스펙’의 최고봉이라는데, ‘스펙’은 명세서, 계획서 등을 뜻하는 specification을 줄여서 표현한 단어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등을 합하여 이르는 말이다. ‘스펙’의 최고봉이라는 인턴이 되기 위한 경쟁도 취업 경쟁 못지 않아 선택된 자만이 인턴이 될 수 있다.

6가지 사항 중 마지막은 어학연수다.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린 어학연수에도 빈부격차가 존재한다. 있는 자는 미국으로, 아닌 자는 동남아로 나누어진다. 돈 없으면 취직도 힘든 세상이란다.

네이션은 “일 잘하고, 팀워크가 된 사람을 뽑아야지. 스펙만보고 뽑으니 하다 그만 두고 아니면 적응 못하는 거다”, “정말 공감 가네요. 내년에 취업인데 해놓은게 없어 막막합니다”,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을 뿐이죠”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용수의 팝스 칼럼

STEVIE WONDER'S Journey Through The Secret Life Of Plants



팝 가수 중에서도 봉사와 자신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인물이 바로 Stevie Wonder(스티비 원더)다. 어릴 때부터 탁월한 음악성을 보인 그는 한 번 들은 음은 절대 잊지 않았고, 견디는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강한 열정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자신을 있게 했다.

그는 “음악이란 삶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가치 있다고 느낀 것들을 끌어내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혼난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온 그이기에 그의 노래는 마음 속 깊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있다.

오늘 소개할 음악은 Stevie Wonder가 1979년에 발표한 ‘Send One Your Love’다. 이 곡은 다큐멘

여 비평가들이나 팬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럼에도 이 앨범은 빌보드 R&B 차트 4위까지 오르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대부분의 음악은 Stevie Wonder가 만들었으며 두 곡의 노래는 그의 아내 Syreeta Wright와 Michael Sambello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 앨범에서 그는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디지털 샘플링을 이용한 신사사이자 음악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 앨범에서 사용된 리듬과 멜로디 기법들은, 이후 80년대 등장한 디지털 레코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뉴 에이지 음악에 영향을 준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Send One Your Love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담아 12송이의 장미꽃을 보내세요”

스티비 원더가 들려주는 ‘식물의 신비’

터리 프로의 사운드 트랙으로 만들어진 ‘식물의 신비한 생활로의 여행(Journey Through The Secret Life Of Plants)’이란 앨범에 연주곡과 노래로 수록되어 있다.

이 앨범은 그가 감명 깊게 읽은 짐작책 ‘식물의 신비한 삶(The Secret Life Of The Plants)’의 감동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식물들이 살아있는 모체인 지구 안에서 예민한 경신세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생물·무생물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혹인 신사사이자 연주 대가답게 그는 총 20곡으로 만들어진 이 사운드 트랙에서 지구의 생생부터 식물들이 생존해 가는 모습을 목소리와 전자음악으로 잘 표현해 냈다.

1976년 ‘Songs In The Key Of Life’(이 앨범)은 최근 다시 사랑을 받고 있는 Isn’t She Lovely가 수록되어 있음)로 그레이미상을 받은 이후에 발표한 이 앨범에서 그는 너무나도 관이한 음악세계를 선보

라고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꽃은 시작적인 아름다움의 의미 뿐 만은 아니다. 그 꽃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보낸다면, 사랑을 받은 그 꽃은 보내는 이의 마음에 꽃의 마음까지도 함께 전달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식물의 세계에는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또 다른 향기가 있다고 한다. 이제까지 무생물이라고만 보아왔던 것마저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기에, 자연과의 동화(同和) 속에 사랑을 통한 기적은 늘 우리 주변에 있다고 노래하는 것이다. 인간의 시각적, 후각적인 기준만으로 식물의 세계를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기억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것 외에 모두 잡초처럼 배제하는 교묘한 사람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 잡초가 비옥한 토양의 일등공신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좀 더 자연 앞에 겸손해져야 할을 일깨워준다.

Send One Your Love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담아 세상을 바라보자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팝컬럼니스트·광주교통방송 ‘낭만이 있는 곳에’ 진행〉

